

고양이 인구가 늘고 있다

尹 信 根*

최근 한국갤럽에서 한국사람들의 애완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다.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약 24%가 애견을 사육하고 있고, 2%정도가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새우, 관상어를 키우는 집도 각각 1%로 집계가 되었다. 이 통계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바로 고양이의 사육숫자다. 고양이가 애완동물로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몇년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비중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고양이는 애완동물이 아닌 영물로 여기는 도둑고양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의 고양이는 더이상 영물이 아닌 애완동물로 귀히 여겨지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진문화의 수입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날이갈수록 고양이의 수가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물론 5천 3백만두의 강아지에 비해 4백만두가 더많은 미국이나 이와 비슷한 숫적균형을 이루는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정도이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선진국의 애완동물숫자배분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된다.

애견인구 2백만명은 과거 몇년전에 생각하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듯 애완용 고양이의 사육인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애완용 고양이를 사육하는 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는 비단 동물병원을 찾는 고객의 증가에서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료의 소비량을 보면 금방 피부로 느낄수가 있다. 얼마전 까지 만 해도 고양이 사료는 애완동물 백화점의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지만 요즘은 곧잘 품절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애완용 고양이의 증가 추세는 임상수의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애완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터라 대부분의 임상수의사들은 고양이의 생활양태나 질병에 무방비 상태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새로 공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식 쌓는데는 왕도가 없음을 인식하고 임상수의사들은 이제부터라도 고양이 연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사육주에게 전달하고 존경받는 수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애완견 못지않게 고양이의 질병이 만만치가 않다. 고양이의 질병을 정확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양이의 행동과 습성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발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고방지는 물론 고양이와 친근해지기 위해서다.

이에 필자는 많은 임상수의사들의 진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겪은 고양이의 기본 습성을 간단히 요약해보자 한다.

고양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한 사냥에 관계된 행동과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행동 2가지로 구분이 된다.

▲ 보행은 오른쪽 앞발과 왼쪽 뒷발을 동시에 내딛고 이어 왼쪽 앞발과 오른쪽 뒷발로 이어지는 사대보행과, 빠른걸음이 되었을 때 한쪽편 앞뒤의 발을 내딛는 측방대보가 있다. 고양이가 살금살금 걸어 갈때도 이 보법이 이용되는데 아주 주의 깊은 걸음이기 때문에 발 하나가 오랜 시간동안 공중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질주할 때는 얼핏 보

* 애견종합병원장

기엔 개구리처럼 전후의 발을 교대로 내딛으며 땅 바닥을 차는 모양을 한다. 등을 아름답게 꿈틀거리며 질주할 때의 시속은 50킬로미터에 이르기도 한다.

▲ 고양이는 아주 날렵하게 뛰어 오른다. 이것은 뒷발의 억센 근육이 뼈의 구조를 이용해서 힘을 유연하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뛰어오름과 동시에 앞발과 꼬리의 균형을 잡게 된다. 고양이는 이렇게해서 자기보다 5배 높은 담을 거뜬히 점프 할 수 있다.

▲ 고양이는 나무타기와 가지위를 능숙하게 잘 걷는다. 야생이었을 적에 몸이 작은 고양이는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높은 나무에 기어올라 도망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적당한 나무가 있으면 지금도 줄기에 날카로운 발톱을 박으며 날렵하게 올라간다. 그러나 내려오는 것은 서툴러 나무에 매달려 뒤로 미끄러지며 내려오거나 엄청난 높이에서도 그냥 점프해 뛰어 내려버린다.

▲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면 고양이의 놀라운 반사신경과 평행감각을 볼 수가 있다. 어깨 뒷쪽이 먼저 회전을 하고 이어 동체가 하반신을 정상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꼬리는 배의 조타(操舵) 역할을 하면서 균형을 잡는다. 착지할 땐 등을 구부리고 네발로 충격을 감소 시킨다.

이러한 고양이식 낙하법도 요즈음엔 집안에서만 생활한 탓인지 착지할 때 실수하는 고양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고양이는 착지에 실수할 때면 순간적으로 몸을 가다듬어 실수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속이는(캄플라지) 습성이 있다.

▲ 사냥은 고양이의 본능이다. 사람과 함께 생활하며 먹이를 계속 제공 받아도 그 충동은 변하지 않고 있다. 어린 아기고양이라 할지라도 쥐나 작은 동물을 보면 뒤쫓는 본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사냥감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생후 1개월쯤해서 어미고양이가 가르쳐 준다. 사냥의 패턴을 보면 고양이는 살금 살금 접근하여 몸을 숙이고 2~5미터까지 기어서 다가가 갑자기 스프링처럼 뛰어 앞발의 발톱으로 낚아챈다. 그 다음에 사냥감의 급소를 송곳니로 물어뜯어 결정타를 가한다. 그러나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의 경우는 곧바로 죽이지 않고 다시 도망가게 해놓고서는 또다시 잡는 잔인한 살육놀이를 즐기는 악취미도 갖고 있다.

▲ 고양이는 잠을 매우 좋아한다.

틈만 있으면 잠을 자려고 한다. 여행성동물이기 때문에 낮에 잠을 잘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요즈음 고양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잘까. 이유는 간단하다. 요즈음 실내고양이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의 보호를 받아 언제나 안전지대에 있는 고양이로서는 잠들어 있어도 위험에 처할 우려가 전혀 없다. 게다가 고양이로서는 개처럼 특별히 해야할 임무가 없다는 것도 수면을 즐기는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고양이가 화를 내는데는 몇가지 단계가 있다. 생명의 위험을 느꼈을 때의 방위본능으로 써의 분노는 전신을 사용한다.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 털을 곤두세우고 모든 수염도 빽빽하게 일으켜 세운다. 등을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 이빨을 들어내며 꼬리는 가늘게 뻔다. 만약 고양이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주인도 조심해야 한다.

▲ 고양이는 무엇이나 흥미를 나타내나 금방 놀이도구로 삼아 버린다. 움직이는 물체가 길죽한 것 그리고 풀이나 텔실처럼 감촉이 부드러운 것을 특히 좋아한다. 건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에도 매우 흥미를 나타낸다. 고양이는 호기심이 많으며 특히 좁은 곳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을 정도다.

이처럼 고양이에게는 놀이가 중요한 뜻을 차지한다. 고양이는 장난스러운 놀이를 통해 사냥 방법이나 고양이 사회를 터득해 나간다. 이렇게 인간세계도 놀이나 장난 등을 통해 차츰 이해해 간다.

▲ 고양이는 잠에서 깨어나면 크게 하품을 하거나 기지개를 친다. 앞발을 길게 뻗고 등을 쭉 편 고양이의 그러한 표정은 충분한 휴식을 취해 자못 만족스러운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잠에서 깨 의식이 아니고 수면중에 속도가 느려진 심장박동수를 촉진시키고 저하된 체온을 올려 온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체조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만을 알아도 고양이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애완용 고양이의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

을 새삼 느끼면서 임상개업수의사들의 적극적인 애완용 고양이 연구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기술지원 수의사 모집

애완동물식품 “유카누바”의 제조회사인 미국 IAMS 사가 기존 아시아 판매권(한국, 중국, 홍콩, 대만, 필리핀)의 고객 서비스를 지원할 수의사를 域內에서 모집합니다.

지원조건은 D.V.M.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고, 업무감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활동적이며 리더쉽이 있고, 대인관계와 의사발표 능력이 뛰어날 것이 요구됩니다.

맡게될 업무는 아시아 판매권을 긴밀히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수의사 세미나와 강연을 준비·편집·실시하며, IAMS의 Distributor 등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영양과 제품에 대한 교육을 준비·편집·실시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업무의 60%는 해외여행이 수반됩니다.

IAMS사에서는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제공 예정입니다.

보람있고 전문적인 업무환경에서 선두에 있는 회사와 같이 일해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력서와 경력사항 및 희망급여를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Director of Sales/Marketing Far East
Iams Pet Food International Inc.
17 C Nassim Road # 01-03 Nassim Park
Singapore 1024